

## 母乳授乳 勸獎教育이 母乳授乳 實踐에 미치는 影響

서인숙\* · 정문숙\*\* · 서영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생후 첫 6개월 동안 영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부득이 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식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모유수유가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사실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다(김미원 등, 1993; UNICEF,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모유수유율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대한간호협회, 1996) 1970년대 99.7%(윤중순등, 1970)이었던 모유수유율이 1980년대는 68.9%(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1990년대는 28.8%(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2)이었으며, 1994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전국 평균 모유수유율이 11.4%(홍문식 등, 1994)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저조한 모유수유율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결여, 자신감의 결여, 성의 부족, 인공영양법의 개발로 인한 간편한 포유법, 주위 사람들의 인공 영양 권고, 대중매체의 과대광고, 병원 신생아실에서의 인공영양 공급, 의료인의 모유수유 지도 결여, 모성의 질병, 유방이상, 모유의 부족, 인공유의 다

량 보급, 가족의 지지 결여, 병원 분만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모델 부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혜경: 1986, 조미영: 1992, 한경자: 1992).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들의 모유 수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고 자라지 못한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모유수유를 계획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열려 있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게 되어(변수자등, 1994) 모유수유를 시도한 산모들의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중단하고 인공수유로 대처한다고 한다(김효진과 박영숙, 1993).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계획과 분만 후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부의 90% 이상이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61.6%가 중단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고(정귀영 등, 1983), 김모임(1984)의 연구에서도 83.6%의 임신부가 분만 전에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계획했던 대로 모유수유를 이행할 수 있었던 산모는 23.1%에 불과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문길남 등 1998; 박옥희 1991; 권숙희 등 1993; 최상순 등 1996; 최영희 등 1996). 이에 대해 이은숙과 서영숙(1996)은 전남대학병원을 내원하는 89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산전 모유수유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모유수유 실천율과 모유수유 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모유수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는 산전 모유수유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Winikoff(1980)도 출산을 앞둔 임부들에게 의료인이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모유수유율이 극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가 산모들의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 수유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은 주로 분유 회사의 기업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이고 산발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간호대학과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수유 전문 간호사가 산전부터 분만 후까지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은 물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까지 모유수유 운동을 펼친 결과 80%이상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제공한 모유수유 권장 교육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모유수유를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 초산모에게 제공한 모유수유 권장 교육이 산모의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모유수유 중단 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가. 모유수유 권장 교육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유수유 권장 교육은 분만 후 2-3일이 경과된 산모를 연구자와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하여 모유수유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 시범, 지지 등을 제공하는 모유수유 권장 교육을 말한다(부록 2).

#### 나. 모유수유실천

1) 이론적 정의  
 생후 4-6개월까지 초유를 포함한 모유를 주 수유방법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Ruth A. Lawrence).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실천이란 생후 5개월까지 모유를 주 수유방법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 II. 대상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only design)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표 1).

〈표 1〉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A1	X	B1
대조군	A2		B2

A1, A2 : 분만 후 3일 이내 실험군, 대조군 사전조사

X : 사전조사 직후 모유수유 교육 제공.

B1, B2 : 실험군, 대조군 사후조사로 분만 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에 전화 면담 조사.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는 3차 병원 산부인과, 2차 병원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1999년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태기간 38주에서 42주의 합병증이 없는 미취업 초산모.
- (2) 출생시 정상아를 분만한 산모.
- (3) 모유수유를 계획한 산모.
- (4)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 (5)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자.

처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퇴원 전 교육군) 93명, 대조군(퇴원 전 비 교육군) 92명 모두 18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실험군에서 10명, 대조

군에서 4명이 탈락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적인 대상자는 실험군 83명, 대조군 88명의 총 171명이었다. 대상자의 주 탈락 이유는 산후 추적이 안된 경우이다.

### 3. 연구 도구

#### 가. 설문지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1명의 간호학 교수의 조언을 받아 총 34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산과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 9문항,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10문항, 태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만 후 모유수유 실천 유, 무 및 모유수유 중단 시 이유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질문하였다. 일반적 특성, 산과적 및 수유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회선등(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측정방법은 '예' 1점, '아니오' 0점을 주어 전체적으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보았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의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법을 이용 측정하였고 태도 측정 문항 중 4개의 부정적 질의 측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전체적으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보았다. 모유수유 실천 유, 무 및 모유수유 중단 시 이유는 분만 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에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질문하였다.

#### 나. 모유수유 권장 교육

모유수유 권장교육은 교육목적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모유수유행위를 실천한다'이며, 교

육내용은 모유수유의 중요성, 모유의 장점, 모유의 신비, 수유시간, 모유수유 적절성 사정, 수면과 휴식, 영양 등으로 구성된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방법, 심리적 동요, 젖 부족, 젖꼭지 손상, 젖이 새는 것, 황달, 설사 등으로 구성된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및 유방관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김미중(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유수유 교육자료와 이은주(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유수유 교육자료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제작하였으며, 24장의 소책자로 만들어 대상자 교육 시 1권씩 나누어주었다.

### 4.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4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이 된 병원의 간호과(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해당 병동 수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 가. 설문지 조사

1999년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원과 동시에 작성된 간호력에 기록된 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자가 분만실에서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 후 모유수유 여부를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산후 모유수유를 하기로 계획하고, 연구목적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산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시기는 질식분만은 퇴원 시에, 제왕절개분만은 움직임이 비교적 원활한 시점인 분만 후 2-3일 사이에 하였다. 이때 대상자의 탈락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집, 친정집, 시집의 전화번호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조군 88명의 설문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실험군 설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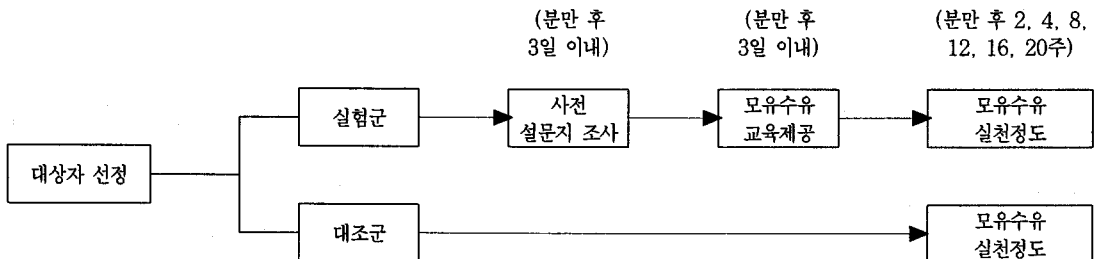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사를 시작하였다.

나. 모유수유 권장교육

모유수유 권장교육은 실험군에게만 제공했으며, 교육 시기는 설문지 응답 후 즉시 하였다. 교육은 연구자와 훈련된 간호사 두 사람이 개별 혹은 2-4명씩 집단으로 병원 수유시간에 맞추어 신생아실 내의 수유실에서 시행하였다. 먼저 교육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준비한 교육용 책자를 배부하였다. 교육내용을 교육용 책자를 중심으로 20분 정도 강의한 후 질문시간을 가졌으며, 교육 후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 전 과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교육시간은 40-50분이었다.

다. 사후 조사

연구자가 분만 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째 되었을 때, 대상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모유수유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다. 모유수유를 중단한 경우에는 모유수유를 중단한 시기와 이유를 알아보았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실천율의 비교는  $\chi^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중단시기의 비교는  $\chi^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Ⅲ.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5세에서 29세 군이 56.6%, 학력은 대졸이상이 55.4%, 종교가 있는 사람이 51.8%,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149

만원이 55.4%,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5.9%이었고, 아기의 성별은 여아가 54.2%, 아기의 체중은 300gm에서 3500gm이 44.6%로 각각 타군 보다 높았다.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은 25세에서 29세 군이 69.3%, 학력은 대졸이상이 53.4%, 종교가 있는 사람이 58.0%,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149만원이 62.5%,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5.0%이었고, 아기의 체중은 3001gm에서 3500gm이 44.6%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아기의 성별은 남, 여 각각 50%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 인수(%)	대조군 인수(%)
연 령(세)		
19 - 24	14(16.9)	18(20.5)
25 - 29	47(56.6)	61(69.3)
30 - 34	20(24.1)	9(10.2)
35 이상	2( 2.4)	-
학 령		
고졸	36(44.6)	38(46.8)
대졸이상	46(55.4)	47(53.4)
종 교		
있다	43(51.8)	51(58.0)
없다	40(48.2)	37(42.0)
월수입(만원)		
99미만	10(12.0)	10(11.4)
100-149	46(55.4)	55(62.5)
150-199	19(22.9)	14(15.9)
200이상	8( 9.6)	9(10.2)
가족형태		
핵가족	63(75.9)	66(75.0)
확대가족	20(24.1)	22(25.0)
아기체중(gm)		
3000이하	21(25.3)	23(26.1)
3001-3500	37(44.6)	51(58.0)
3501이상	25(30.1)	14(15.9)
아기성별		
남	38(45.8)	44(50.0)
여	45(54.2)	44(50.0)
계	83(100.0)	88(100.0)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실험군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에 의하면 분만방법은 질식분만이

63.9%, 자연 유산 경험이 없다가 89.8%, 인공유산 경험이 없다가 87.5%,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가 63.9%, 젖 형성 과정을 모른다가 71.1%, 젖꼭지 관리를 한 적이 있다가 57.8%, 유방맛사지를 한 적이 없다가 57.8%, 모유수유 계획은 임신중이 84.3%로 각각 타군 보다 높았다. 대조군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에서는 분만방법은 질식분만이 63.6%, 자연 유산 경험이 없다가 84.3%, 인공유산 경험이 없다가 79.5%,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가 50%, 젖 형성 과정을 모른다가 60.2%, 젖꼭지 관리를 한 적이 없다가 55.7%, 유방맛사지를 한 적이 없다가 60.2%, 모유수유 계획은 임신중이 88.6%로 각각 타군 보다 높았다. 이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에서 실험군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표 3〉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및 수유 관련 특성

	실험군 인수(%)	대조군 인수(%)
분만방법		
질식분만	53(63.9)	56(63.6)
제왕절개	30(36.1)	32(36.4)
자연유산 경험		
유	13(15.7)	9(10.2)
무	70(89.8)	70(84.3)
인공유산 경험		
유	17(20.5)	11(12.5)
무	77(87.5)	66(79.5)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유	53(63.9)	44(50.0)
무	30(36.1)	44(50.0)
젖 형성 과정인지		
유	24(28.9)	35(39.8)
무	59(71.1)	53(60.2)
젖꼭지관리		
유	48(57.8)	39(44.3)
무	35(42.2)	49(55.7)
유방맛사지		
유	48(57.8)	35(39.8)
무	35(42.2)	53(60.2)
모유수유계획		
임신중	80(84.3)	78(88.6)
분만후	13(15.7)	10(11.4)
계	83(100.0)	88(100.0)

### 3.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실험군의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지식 점수는 평균 9.13점,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태도 점수는 평균 37.53점 이었다. 대조군의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지식 점수는 평균 8.97점,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태도점수는 평균 37.38점 이었다.

이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지식 및 태도에서 실험군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평균점수

	실험군	대조군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식	9.13±1.53	8.97±1.56
태도	37.53±4.01	37.38±4.22

### 4. 모유수유 실천율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2). 산후 1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89.7%이었고, 대조군은 95.5%로 대조군이 실험군 보다 모유수유율이 조금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산후 2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71.1%이었고, 대조군은 54.5%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산후 4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56.6%이었고, 대조군은 31.8%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산후 8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41.0%이었고, 대조군은 27.3%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산후 12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36.1%이었고, 대조군은 21.6%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산후 16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28.9%이었고, 대조군은 21.6%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산후 20주에 실험군은 모유수유율이 25.0%이었고, 대조군은 14.8%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5〉 모유수유 교육 후 대상자의 주별 모유수유 실천율

	실험군 인수(%)	대조군 인수(%)
1주	74(89.2)	84(95.5)
2주	59(71.1)	48(54.5)*
4주	47(56.6)	28(31.8)*
8주	34(41.0)	24(27.3)*
12주	30(36.1)	19(21.6)*
16주	24(28.9)	19(21.6)
20주	21(25.0)	13(14.8)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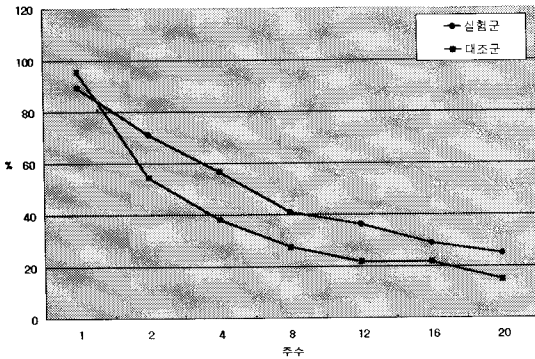


그림 2. 모유수유 교육 후 대상자의 주별 모유수유 실천율

### 5. 모유수유 완전 중단 시점 및 이유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유수유 완전 중단 시점은 다음과 같다(표 6, 그림 3). 모유수유 중단율은 산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에서 실험군의 모유수유 중단율이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모유수유 완전 중단 시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산후 1-2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11.1%, 대조군에서는 26.4%이었다.

산후 3-4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25.9%, 대조군에서는 36.8%이었으며, 대조군의 50% 이상이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하였다. 산후 5-8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22.2%, 대조군에서는 14.7%이었으며, 실험군의 50% 이상이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하였다. 산후 9-12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14.8%, 대조군에서는 8.8%이었다. 산후 13-16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16.7%,

대조군에서는 1.5%이었다. 산후 17-20주 사이에 모유수유를 완전 중단한 경우는 실험군에서 9.3%, 대조군에서는 11.8%이었다.

〈표 6〉 대상자의 모유수유 완전 중단시점

	실험군 인수(%)	누적율(%)	대조군 인수(%)	누적율(%)
1주 - 2주	6(11.1)	-	18(26.4)*	-
3주 - 4주	14(25.9)	37.0	25(36.8)*	63.2
5주 - 8주	12(22.2)	59.2	10(14.7)*	77.9
9주 - 12주	8(14.8)	74.0	6( 8.8)*	86.7
13주 - 16주	9(16.7)	90.7	1( 1.5)*	88.2
17주 - 20주	5( 9.3)	100.0	8(11.8)*	100.0
계	54(100.0)	100.0	68(100.0)	100.0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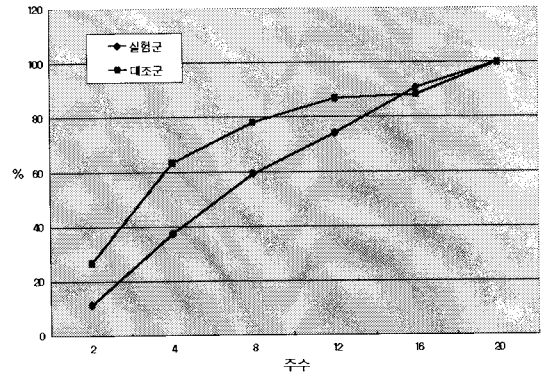


그림 3. 대상자의 모유수유 완전 중단시점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두 군 모두 모유량 부족이 실험군 65.5%, 대조군 50.7%로 인공수유를 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원인으로는 실험군에서는 유두열상(7.3%), 아기의 입원(5.5%), 아기가 잘 빨지 않음(3.6%), 엄마의 건강상태 및 투약(3.6%), 이유식 시기가 되어서(3.6%)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엄마의 건강상태 및 투약(10.7%), 아기의 입원(9.0%), 아기가 잘 빨지 않음(7.5%), 아기의 설사, 황달(7.5%), 유두열상(6.5%)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그냥 끝을 계획이어서', '몸매관리' 등이 있었다.

##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모유수유를 계획한 산모에게 분만 후 3일 이내에 모유수유 권장 교육을 실시한 후 분

만 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의 실제 모유수유 실천상황을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와 모유수유 중단 요인들을 분석 고찰하였다.

산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비교한 결과, 산후 2주, 4주, 8주, 12주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산후 모유수유 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최순옥(1987)이 산후 모유수유에 관련된 교육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산후 1개월과 5개월의 모유수유율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김명순(2000)이 산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모유수유 교육 제공하여 산후 6개월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분만 후 입원 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산모에게 직접적인 지지와 퇴원 후 전화 상담을 제공한 뒤 모유수유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 실험군의 모유수유 실천율이 80%로 대조군의 50%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고 보고한 Cronenwet와 Reinhardt(198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산후 16주, 20주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유수유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산후에만 국한된 중재방법이었고, 교육시점이 분만 3일 이내로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산후 20주 동안의 실제 수유 실천 현황을 보면 산후 1주의 모유수유율은 실험군에서 89.2%, 대조군에서는 95.5%로 실험군과 대조군 대부분의 산모가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이은주(1997)의 연구 결과에서 산욕초기 모유수유율이 실험군 91.5%, 대조군 52.6%로 나타난 것과 안신영과 고효정(1999)의 연구결과에서 분만 1주의 모유수유율(혼합수유를 포함)이 실험군

97.6%, 대조군 73.1%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실험군은 유사하지만 대조군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시 이미 모유수유를 계획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유수유시 중요한 요인인 모유수유를 하려는 산모의 의지가 산모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산후 2주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의 경우 71.1%, 대조군의 경우 과반수 정도인 54.5%로 산후 1주시점의 모유수유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약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대조군은 95.5%에서 54.5%로 크게 감소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만 2주의 모유수유율이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두 군 다 모유수유를 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실험군의 경우 산후 모유수유 교육을 통한 재동기 부여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산모의 행동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대조군의 경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식이 부족하고 수유요령이 부족하여 결국 자신감을 잃고 쉽게 모유수유를 포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분만 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계속하여 산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산후 4주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유수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의 경우 과반수 정도인 56.6%, 대조군의 경우 전체 산모의 1/3 정도인 31.8%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분만 1개월 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였다(김명순, 2000; 이은주, 1997). 선행 연구에서는 분만 1개월 이내의 모유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로 직장 여성의 직장복귀로 인한 중단이 가장 높았지만, 미취업

〈표 7〉 모유수유 중단시점에 따른 중단이유

	실험군 인수(%)				대조군 인수(%)			
	4주	8주	20주	계	4주	8주	0주	계
모유량 부족	12	7	17	36(65.5)	20	8	6	34(50.7)
아기가 잘 빨지 않음	-	2	-	2(3.6)	5	-	-	5(7.5)
아기의 설사, 황달	1	-	-	1(1.8)	3	1	1	5(7.5)
아기의 입원	2	1	-	3(5.5)	4	-	2	6(9.0)
유두열상	2	1	1	4(7.3)	5	-	-	5(6.5)
젖몸살	1	-	-	1(1.8)	1	-	-	1(1.5)
우유의 편리성	-	1	-	1(1.8)	-	-	1	1(1.5)
엄마의 건강상태 및 투약	2	-	-	2(3.6)	5	-	2	7(10.7)
이유식시기가 되어서	-	-	2	2(3.6)	-	-	3	3(3.5)
기타	-	-	2	2(3.6)	-	-	1	1(1.5)
계	20	12	22	54(100.0)	43	9	16	68(100.0)

산모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모유량 부족이 실험군의 경우 60%, 대조군의 경우 46.5%로 대부분이었다.

산후 8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실험군 41.0%, 대조군 27.3%로 이는 이은주(1997)의 연구 결과에서 실험군에서 처음 1개월 동안 59.3%이었던 모유수유율이 2개월에는 52.5%로, 대조군에서 27.0%에서 7.9%로 감소를 보인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산후 12주의 모유수유율은 실험군 36.1%, 대조군 21.6%로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였다. 이는 김명순(2000)의 연구 결과에서 산후 12주의 모유수유율이 50.0%, 대조군의 26.0%인 것과 비교할 때 대조군의 경우는 유사하지만 실험군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산후 16주의 모유수유율은 실험군 28.9%, 대조군 21.6%, 산후 20주의 모유수유율은 실험군 25.0%, 대조군 14.8%로 나타나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모유수유율은 높지만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김명순(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생후 5개월 시점에서 45.2%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1개월의 73.8%와 생후 2개월 때의 50.0%와 비교해 볼 때 시간이 경과해도 모유수유 실천율의 감소는 매우 적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1회의 교육을 하였으나 김명순(2000)의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교육을 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화 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모유수유 권장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적정기간까지 모유수유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모유수유를 조기 중단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산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의 효과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실험군의 25.0%만 산후 20주까지 전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나머지는 모유수유를 중단한 것은 산후 교육뿐만 아니라 산전과 산욕기의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유수유의 완전 중단시점을 볼 때, 분만 후 3-4주째 실험군 25.9%, 대조군 36.8%로 가장 많이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혜숙(1997)은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산후 2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사소한 좌절이나 실수는 모유수유 정착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모유수유 재교육이 산후 3-4주 이내에 제공되면 모유수유 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모유량 부족이 실험군 66.5%, 대조군 5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실험군의 경우 유두열상, 아기의 입원, 아기가 잘 빨지 않음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엄마의 건강상태 및 투약, 아기의 입원, 아기의 설사, 황달, 아기가 잘 빨지 않음의 순이었다. 이는 모유량 부족이 김화숙(1992)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중단 원인의 45.0%와 황문숙(1997)의 54.4%와 유사하다. 모유량 부족은 모유수유 권장교육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모유량 부족이 원인으로 인공수유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 모유량 부족의 과학적인 근거 규명과 모유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중점적인 간호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산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이의 적용이 필요하며, 산전 교육 및 산욕기 동안의 반복적인 강화 교육이 우리나라 산모의 모유수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보건 의료기관에서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의 제작, 비치 및 배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 하겠다.

## V. 요 약

본 연구는 산후 모유수유 권장교육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 시내에 소재한 3차병원, 2차병원 및 1차병원에서 1999년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 까지 분만하고, 분만 후 모유수유를 계획한 미 취업 초산모로 실험군 83명, 대조군 88명으로 총 171명이었다.

연구절차는 연구대상자에게 분만 후 3일 이내에 일반적 특성, 산과적 및 수유 관련 특성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모유에 대한 태도를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사전조사 하였다. 사전 설문지 조사 후 대조군에게는 일반간호만 실시하였고, 실험군에게는 모유수유 권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산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에 모유수유 지속 유, 무 및 모유수유 중단 시 그 이유에 대해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모유수유 지속정도는 산후 2주, 4주, 8주, 12주에서는 실험군의 모유수유 실천율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그러나, 산후 16주, 20주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율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



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모유수유 완전 중단시점은 산후 2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 모든 시점에서 실험군의 모유수유 중단율이 대조군 보다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산후 4주에서의 모유수유 중단율이 실험군 25.5%, 대조군 36.8%로 두군 모두 가장 높았다.

3) 모유수유 중단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모유량 부족으로 실험군 65.5%, 대조군 50.7%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산후 초산모에게 제공한 모유수유 권장 교육이 모유수유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에게 적정 기간까지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산후 모유수유 교육 뿐 만 아니라 산전을 포함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모유수유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후 3-4주 사이에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육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유수유 중단 요인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모유량 부족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권숙희 (1993).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김명순 (2000). 모유수유 보건교육 후 수유행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대학원.

김미원, 신희선, 김정선, 안채순, 오상은, 유경원, 이에란, 장영숙 (1993).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의 이환율 비교. 대한모자간호학회지, 3(2), 166-171.

김미중 (1995). 산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숙영 (199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 실천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혜숙 (1997). 모유수유 전화 상담 내용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5(1).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효진, 박영숙 (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 식이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377-396.

대한간호협회 (1996).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문길남, 정주희 이선옥, 조경순, 김영자, 정은순, 배정이 (1998). 산후 첫 주간 모유수유 문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416-428.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 45-58.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수유 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신연옥 (1991). 신생아 관리방법별 장단점과 모유수유율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신희선, 전미양 (1996). 모유수유 결정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2), 31-41.

안신영, 고효정 (1999). 모유수유 교육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방법, 태도 및 지속정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18-29.

윤종순, 김인달 (1970). 한국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영양양상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 영양학회지, 3(65).

이은숙, 서영숙 (1996). 모유수유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59-75.

이은주 (1997). 산전 모유수유교육이 모유수유실천 및 지식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이혜경 (1986).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영자 (1998). 초임부의 교육 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187-202.

정귀영, 이근 (1983). 모유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1-7.

정혜경, 이미라 (1993). 임부의 모유수유교육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 (1996).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22-233.

최순옥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양자, 안은숙 (1992). 산욕기 산모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적십자간호대학논문집, 2, 139-156.

최영희, 김혜숙, 박현정 (1997). 모유수유를 실천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 대한간호, 36(12), 164-171.

환경자 (1994). 모유수유와 간호사의 역할. 대한간협 보수교육교재, 쪽 3-13.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1982년 전국 가족 보건 실태 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보.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92).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보.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황문숙 (1997). 모자동실이 모성역할과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Cornenwett LR, Reinhardt R (1987). Support and breastfeeding : A review. Birth, 14(4), 199-203.

Hill PD (1987) Effects of education on breastfeeding Succes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45-156.

Huggins K (1990). The nursing mother's companion. Boston, The Havard Common Press.

Loughlin HH, Clapp-channing NE, Gehlbach SH, Pollard JC, Mccutchen TM (1985).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 Identifying those at risk. Pediatrics, 508-513.

Manstead ASR, Proffitt C, Smart JL (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657-671.

Ruth AL (1994). Breast feeding :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4th ed.), pp.222-230

UNICEF (1984). 1984년 세계 아동의 현황보고서.

Winikoff B, Bear EE (1980). The obsterician's opportunity translating 'breast is best' from theory to practice. Am. J. Obst. Gyn, 138, 105-117.

-Abstract-

Key concept : Education, Encourage, Breastfeeding, Practice

## Effect of Education for Encouraging Breastfeeding on Practice of Breastfeeding\*

Seo, In Suk\*\* · Jung, Moon Sook\*\*\*  
Suh, Young Sook\*\*\*\*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effect of education for breastfeeding on practice of breastfeeding 171 primiparae (experimental group with education : 83 and control group without education : 88) who gave birth in hospitals located in Taegu City from October 25, 1999 to December 25, 1999 and planned to breastfeed their children after childbir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experimental group's practice rate of breast-feeding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s at the points of two weeks, four weeks, eight weeks and twelve weeks after childbirth( $p < 0.05$ ). However, the rate at the points of sixteen weeks and twenty weeks after childbirth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 2) The experimental group's discontinuance rate of breast-feeding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s at all the points of two weeks, fou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Health in June 2000.

\*\*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l University

weeks, eight weeks, twelve weeks, sixteen weeks and twenty weeks after childbirth,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5$ ). The discontinuance rate of breast-feeding at the point of four weeks after childbirth was the highest in both groups. It accounted for 25.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6.8% in the control group.

3) The reason of which the rate appeared to be the highest among those for discontinuance of breast-feeding was the lack of breast milk. The rate accounted for 65.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50.7% i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education for encouraging breast-feeding provided to the primiparae after childbirt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